

독도의 진실-3

-쇄환정책과 우산도-

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편

1. 김인우, '무릉 등처 안무사'가 되다

- 1416년 태종은 지체된 울릉도 쇄환정책을 실천에 옮겼다. 명령을 내린 지 12년 만의 일이었다.
- 김인우는 '무릉(=울릉도) 등처(등지) 안무사'라는 관직을 받았다. '안무사'란 주민들의 생활을 잘 살펴보고 민생에 편의를 제공하여 장애물을 제거함을 임무로 하는 관직이다. 김인우는 울릉도에서 거주민을 본토로 옮겨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.
- 1) 세금납부, 특히 **군역업무를 회피하기 위해** 울릉도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. 그런 도망처를 없애야 한다.
- 2) 울릉도에 도망자가 많아지면 **왜구들이 노략질을 위해 들어올** 수가 있고 왜구들과 도망자들이 함께 **강원도로 침입해 올** 수 있다.
- 이와 같은 생각은 태종의 생각이기도 했다. 원문은 다음과 같다.

-
- 김인우를 무릉 등처 안무사로 삼았다. (중략) 김인우가 또 아뢰기를, “무릉도가 멀리 바다 가운데에 있어 사람이 서로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역을 피하는 자가 혹 도망쳐 들어옵니다. 만일 이 섬에 주접(住接)하는 사람이

많으면 왜적이 마침내 반드시 들어와 도둑질하여 이로 인해 강원도에 침입 할 것입니다.”하였다. 임금이 옳게 여겨 김인우를 무릉 등처 안무사로 삼았다.

『태종실록』권32, 태종 16년(1416년) 9월 조

2. 우산도에서 돌아온 김인우

- 1416년 말경에 울릉도를 향해 출발한 김인우 일행은 1417년 2월경 조선으로 귀환했다.
- 이때 『태종실록』은 김인우가 ‘우산도’에서 돌아왔다고 기록했다.
- ‘우산도’는 독도의 옛 명칭으로 일컬어진다. 그러나 여기서는 ‘우산도’를 ‘울릉도’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. 원문은 다음과 같다.

-
- 안무사(按撫使) 김인우(金麟雨)가 우산도(于山島)에서 돌아와 토산물(土産物)인 대죽(大竹)·수우피(水牛皮)·생저(生苧)·면자(綿子)·검박목(檢樸木) 등을 바쳤다. 또 그곳의 거주민 3명을 거느리고 왔는데 그 섬의 호수[戶數]는 15구(口)요, 남녀를 합치면 86명이었다. 김인우가 갔다가 돌아올 때에, 두 번이나 태풍(颱風)을 만나서 겨우 살아날 수 있었다고 했다.(按撫使金麟雨還自于山島 獻土産大竹 水牛皮 生苧 綿子 檢樸木等物 且率居人三名以來 其島戶凡十五口 男女并八十六 麟雨之往還也 再逢颶風 僅得其生)

『태종실록』권33, 태종 17년(1417년) 9월 조

- 인용문을 보면 김인우는 우산도에서 3명의 거주민과 함께 귀향했고 우산도에는 86명이 살고 있다고 기록되었다. 현재의 독도에는 86명이나 사람들이 거주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우산도를 독도로 해석하기는 어렵다.
-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‘우산도’는 ‘울릉도’로 해석해야 한다.

- 이 기록에 대해 일본 측은 '우산도'란 독도가 아니라 '울릉도'이며 한국은 역사적으로 독도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.
- 그러나 15세기 중반 이후에는 '우산도'는 '독도'의 옛 명칭으로 정확히 등장한다.

3. 김인우, '우산무릉 등처 안무사'가 되다

- 1425년 김인우는 다시 '안무사'가 되어 울릉도 쇄환을 위해 출범했다. 원문은 다음과 같다.

-
- 전 판정기현사 김인우를 '우산무릉 등처 안무사'로 삼았다. (중략) 인우가 군인 50명을 거느리고 군기와 3개월 양식을 갖춘 다음 배를 타고 나섰다.

『세종실록』권29, 세종 7년(1425년) 8월조

- 원문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중요사항은 김인우의 관직명이 '무릉 등처 안무사'가 아니라 '우산무릉 등처 안무사'로 바뀌었다는 점이다.
- 1417년 김인우가 '무릉 등처 안무사'로 3명의 울릉도 거주민을 데려왔을 때 그들이 '우산도'에서 왔다고 기록되었다.
- 그 후 1425년 시점에서 김인우의 관직명이 '우산 무릉 등처 안무사'로 바뀌었다는 사실은 조선왕조가 '우산도'라는 섬이 '무릉도(=울릉도)' 이외에 있다는 확신을 가졌음을 보여준다. 이런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? 이에 대한 무리가 없는 해석은 다음과 같다.
- 당시 본토에서는 울릉도를 주로 '무릉도'로 불렀다. 그러나 울릉도 거주민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인 울릉도를 우산국의 '우산'을 따서 섬으로는 '우산

도'로 불렀다.

- 그러므로 울릉도에는 '무릉도'와 '우산도'라는 두 개의 명칭이 존재했다. 독도 명칭에 대해서는 본토 사람들은 잘 몰랐고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명칭을 갖고 있었다고 추정되지만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.
- 그러나 울릉도 거주민들이 모두 본토로 쇄환된 이후에는 울릉도를 '우산도'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사실상 없어졌다. 그 결과 본토 사람들이 울릉도를 무릉도 등으로 부르게 되었고 '우산도' 명칭은 독도 명칭으로 옮겨 갔다.
- 즉 독도 명칭이 '우산도'로 정착된 것은 조선시대 초기 태종과 세종의 시대에 울릉도 거주민에 대한 쇄환정책을 실시하여 울릉도와 독도 주변의 지리가 보다 정확히 알려진 결과였다.
- 즉 울릉도 사람들은 독도를 육안으로 보았기 때문에 태고로부터 독도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기록에는 없지만 명칭도 있었을 것이다. 그러나 본토 사람들이 독도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하고 명칭을 붙인 시기는 바로 15세기 초반이었다고 할 수 있다.
- 일본이 독도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이 17세기 중반으로 인정하므로 한국의 본토 사람들이 독도를 15세기에 정확히 인식했다고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.
- 그리고 울릉도 거주민의 인식을 생각할 때 독도가 512년에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는 종래의 논리는 그대로 인정된다.

4. 김인우, 2차 쇄환에서 귀환하다

김인우가 20명을 데리고 울릉도에서 귀환했다. 원문은 다음과 같다.

-
- '우산무릉 등처 안무사' 김인우가 본도에 피역(避役)한 남녀 20인을 수색하

여 잡아와 복명했다. 처음 인우가 병선 2척을 거느리고 **무릉도**에 들어갔는데 선군 46명이 탄 배 한 척은 바람을 만나, 간 곳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.

『세종실록』권30, 세종 7년(1425년) 10월조

- 김인우는 울릉도에서 20명의 거주민을 데려왔다. 그들은 모두 본토로부터 울릉도로 도망간 사람들이었다. 기록에 나온 '본도'란 울릉도(무릉도)로 해석된다.

5. 울릉도 쇄환의 완성

1438년 세종대왕이 남회와 조민을 울릉도로 파견하여 **쇄환을 완성**시켰다. 그들은 울릉도 거주민 66명을 본토로 데려왔다. 원문은 다음과 같다.

- 전 호군(護軍) 남회(南薈)와 전 부사직(副司直) 조민(曹敏) 을 '**무릉도 순심 경차관(茂陵島巡審敬差官)**'으로 삼았다.

『세종실록』권81, 세종20년(1438) 4월조

- 호군(護軍) 남회(南薈)와 사직(司直) 조민(曹敏)이 무릉도(茂陵島)로부터 돌아와 복명하고 포획한 남녀 모두 66명과 거기서 산출되는 (중략) 산물을 바치고, 인하여 아뢰기를, “발선(發船)한 지 하루 낮과 하루 밤 만에 비로소 도착하여 날이 밝기 전에 인가를 엄습(掩襲)하온즉 항거하는 자가 없었고, 모두가 본국 사람이었으며 스스로 말하기를, ‘이곳 토지가 비옥 풍요하다는 말을 듣고 몇 년 전 봄에 몰래 도망해 왔다.’고 합니다. (후략)”

『세종실록』권82, 세종 20년(1438년) 7월조

-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울릉도 등지로 파견된 관리들의 관직의 변화다.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.

- '무릉 등처 안무사'(김인우, 1416)
 - '우산무릉 등처 안무사'(김인우, 1425)
 - '무릉도 순심 경차관'(남회와 조민, 1438)
-
- 여기서 '경차관'이란 조선시대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특수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관직을 가리킨다.
 - 조선 본토에서 우산도에 대한 지견이 김인우 파견 시기에 많이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. 그러므로 1438년 남회 등이 울릉도 등지에 파견되었을 때 그 관직명에는 '우산'이라는 명칭이 빠졌을 것으로 풀이된다. 즉 이 시기에 **'우산도 명칭이 독도명칭으로 정착'**된 것이다.
 - 남회와 조민이 울릉도로부터 데려온 66명이 울릉도 거주민으로 마지막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본토에서 도망간 사람들이었다. 이것으로 울릉도 쇄환이 완성되었다. 울릉도에서 본토로 온 사람들의 인원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.
-
- 12명(울릉도 토착민, 1412, 강원도 해안에 정박)
 - 3명(울릉도 토착민, 1417, 김인우가 데려옴)
 - 20명(울릉도로의 도망자, 1425, 김인우가 데려옴)
 - 66명(울릉도로의 도망자, 1438, 남회와 조민이 데려옴)
-
- 위와 같이 결국 울릉도 거주민은 합계 101명이었고 그들 중 15명이 토착민이고 86명이 본토로부터 도망간 사람들이었다.